

2007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

이 인 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iklee@kiep.go.kr, Tel: 3460-1153)

주요 내용

- 200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6년보다 소폭 하락한 4.8~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둔화의 진정세, 무역수지의 개선, 인플레이션의 안정세 등에 따른 실질소비자지출과 민간투자의 증대 효과 등으로 3% 수준의 추세적인 성장률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경제는 2007년에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0%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경제는 투자와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됨으로써 2006년에 비해 소폭 둔화된 1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경제는 2.5% 내외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외환시장의 경우 미 달러화는 약세, 일본 엔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EU, 일본, 중국의 금리 인상은 제한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의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의 둔화 여부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할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007년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DDA의 경우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초가 향후 DDA를 결정짓게 될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FTA의 경우에는 현재도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 지난 2006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고유가,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미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 등으로 인해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더욱 지지를 받고 있음.
- 지난 2월 28일 발표된 2006년 4/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당초 전기대비연율 3.5%에서 2.2%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중국발 금융불안(2월 27일)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미국 경제둔화 가능성이 제기 되기도 하였으나 미국경제는 3% 정도의 지속 가능한 수준의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방기준금리를 현 수준(5.25%)에서 동결해오고 있는데 올해 1월 열렸던 FOMC 회의 결과를 볼 때, 지난 12월 FOMC 회의 때보다 미국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FOMC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에도 일부 안정 신호가 나타나 향후 미국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연초부터 빠른 속도로 위축을 보이던 미국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미국경제 연착륙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미국의 기존 주택판매는 2006년 3/4분기에 전기대비 6.1% 감소하였으나 4/4분기에는 0.6%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신규 주택판매의 경우 4/4분기에 오히려 전기대비 5.4% 증가하였음.
- 이번 FOMC 회의에서 나타난 경제상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인하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둔화의 진정세, 무역수지의 개선, 인플레이션의 안정세 및 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비자지출과 민간투자의 증대 효과 등으로, 3% 수준의 추세적인 성장률에 접근하면서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

- 최근 일본 내각부 산하 경제기획협회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1.4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감속세는 2/4분기(1.57%)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07년 상반기 경기 감속 전망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① 해외경제의 감속에 의한 수출증가세 둔화 가능성 ② IT 부문의 생산속도 조정 ③ 소재·철도부문 등에 의한 대형투자의 완료 ④ 완만한 임금상승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7년 하반기에는 2%대 전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이후에는 2%대 중반의 견실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1/4분기에 평균 0.0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분기(2006년 4/4분기)에 이어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4/4분기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의 경우 기업활동의 확대 경향, 단카이 세대의 퇴직에 따른 인재 확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분기 실업률은 4.0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일본경제는 당분간 감속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7년도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에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5%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완만한 금리 조정을 계속할 것' 이라고 표명한 바 있어 향후에도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더군다나 2007년 중반까지의 낮은 물가상승세와 감속성장 예상, 7월의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2007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중국

- 중국정부는 2006년 들어서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상(2회), 지급준비율 인상(3회), 철강 등 과잉생산분야에 대한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 등 일련의 경기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왔음.
- 이에 따라 2006년 2/4분기에 11.5%에 달하였던 경제성장률이 3/4분기에는 10.6%로, 4/4분기에는 10.4%로 하락하는 등 과열경기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
- 2007년에도 중국정부는 투자 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지급준비율 인상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10.7%에 비해 소폭 하락한 10%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 중에는 중국정부의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상 등 긴축조치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나, 하반기에는 2008년 8월에 개최되는 북경올림픽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와 소비 확대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 증대,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상, 중국정부의 수출에 대한 우대 축소 등으로 2007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06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은 1조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과잉유동성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출 규제와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흑자의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투기성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의 외환보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증시과열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중국정부의 과열 억제 조치 시행 우려, 기관투자가들의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 확대 등으로 지난 2월 27일 상해주가지수가 8.8% 폭락하는 등 중국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중국경제가 금년에도 10% 전후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펀더멘털이 매우 양호한 가운데,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 중국정부의 증시 안정화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증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됨.

EU

- 2006년 EU25와 유로지역 경제는 견실한 수출부문과 기업투자 확대에 힘입어 각각 전년대비 2.9%와 2.7% 성장함으로써 2001년 이후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함.
- 이러한 2006년 EU 경제의 높은 성장세는 견실한 수출부문과 기업투자 확대가 주도한 것임.
- 최근의 경기상황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EU와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여 2007년에도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구매관리자 지수는 2006년 6월 최고치 이후 다소 후퇴했지만 2007년 초에도 여전히 견실한 모습이며, 해외주문도 유로화 강세 및 세계경기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도 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 10월 이후 다소 후퇴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기조를 타고 있음.
-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모두 일곱 번 상향 조정하여, 2003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2%였던 기준금리를 3.75%까지 인상하였음.
- 이는 고유가와 원자재 및 농산물의 가격상승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6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등 물가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유럽중앙은행은 2007년 중반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 후, 2007년 하반기에는 4%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금융시장

-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힘입어 평가절상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나 최근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 엔화의 경우 달러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2월의 금리인상 이후 강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대외금리 차이 축소가 엔캐리 트레이드 둔화로 이어질 것인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금리 인상 이후 엔화 환율은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1월 1일~2월 21일 일본 엔화는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에 대해 각각 1.5%, 1.3%, 0.7% 절하되었으나, 금리 인상 이후 3월 21일 현재까지 각각 3.3%, 2.9%, 3.3% 절상되었음.
- 주요 투자은행들은 달러/유로 환율이 3개월 후 1.33에서 12개월 후에는 1.35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엔/달러 환율은 3개월 후 115.33엔 수준에서 12개월 후에는 108.67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 2007년에도 신흥시장 민간부문의 자본 유입은 2006년에 비해 331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2006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지 않은 가운데 우호적인 시장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임.
- 한편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의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의 둔화 여부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할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일본중앙은행의 금리조정 계획, 일본과 주요국의 금리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국제유동성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통상환경

- DDA 공식 재개가 합의됨에 따라 2007년 2월 중 실질적으로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2007년 12월까지 종결을 목표로 2007년 4월 초까지 세부원칙(modality)을 합의·도출하고자 집중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됨.
- DDA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초가 향후 DDA를 결정짓게 될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임.
- FTA의 경우 현재에도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와 칠레, 페루, MERCOSUR 등 남미지역 및 EFTA 등 유럽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 활동이 예상됨. 이는 최근 EU가 다자주의 우선 원칙을 내세워 FTA 추진을 자제하고 있으며 미주지역 역시 FTA 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임.

* 본고는 [2007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편]이며, 각 국가별 상세한 경제전망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07-13(2)호